

지역 소식통



부안군, 6차산업화 앵커상품 육성 토론회 개최

부안군은 6차 산업화 앵커 상품 육성 토론회가 지난 21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이동공농업경영과장을 비롯하여 하남선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경영과와 농업기술센터 각 팀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돈 되는 복덩이 농산물 육성, 농업분야의 신 성장동력 발굴, 6차 산업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군을 대표하는 주력 농산물인 앵커 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앵커 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인지도, 재배환경의 안정성, 생산의 집산화·규모화, 6차 산업화 및 수출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꼽았으며, 앵커 대상상품으로 오디, 양파, 마늘, 참깨, 감자 등이 거론됐다.

특히 부안군 6차 산업화 앵커 상품의 선정 및 육성 시 내실있는 성과를 위해 행정, 생산능가, 전문가 농협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앞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농업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서, 교통시설물 일제점검

부안경찰서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신호기 감전사고, 도로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지난 25일 신호기 누전차단기 등 정상작동 상태, 신호등 맨홀 내 전선 접속불량으로 인한 누전 발생 여부 등 시설물 파손 대비 교통안전 지표자에 대한 점검 및 도로침수나 유실, 포트 홀, 낙석 등 재해 취약구간에 대해 정밀 진단했다.

이동민 서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점검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 강화

폭염 대비 행동 매뉴얼 제작 경로당·무더위 쉼터 등에 배부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폭염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기상청 발표 기준 폭염 특보가 지난 24일 현재 예년보다 많은 총 19 회(6월 9회, 7월 10회) 발령된 데다 앞으로도 폭염 특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1차적으로 재난도우미(노인돌보미,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와 시청 직원, 재난취약 마을에 폭염 정보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문자나 전광판 자동 음성정보 등으로 알린다.

이를 접한 재난도우미 등은 노약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 등을 확인한다.

또 도심 열섬 현상 완화와 대기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내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사이 수시로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공공기관 등 321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했다.

지난달까지 냉방기기 상태와 청결 상태 등을 점검을 마쳤던 시는 이달 24일에는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무더위 쉼터 관리 현황과 냉방기 가동 상태 등을 점검했다.

시는 이후에도 읍면동 자율방재단과 협력해 수시로 무더위 쉼터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폭염 대비 행동 매뉴얼을 제작해 각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등에 배부하는 한편 재난도우미들의 취약계층 방문 시 활용 시민들에게 폭염 대응 요령 등을 세세하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연일 38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께서 무더운 시간대인 낮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 줄"을 당부했다.

이어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정읍시보건소가 태인면 3개 마을(태인면 분동, 상산 덕두마을) 95가구에 농약 안전 보관함(이하 농약 보관함)을 설치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보살예방법회가 주관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 목적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총동적인 음독자살 예방과 마을 내 생명 안전망 구축이다.

관련하여 보건소는 지난 2월 읍면 농가 구성 현황 등을 파악해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한 바 있다.

이후 4월에 해당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마을 주민 정신 건강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2017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고창군, 브랜드경영 부문 '최우수'

지속가능 발전 친환경 공공부문 성과 인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5일 서울특별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7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브랜드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7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은 중앙일보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포스트코리아가 후원하며 '브랜드경영, 리더십경영, 창조경영, 소통경영' 분야 등의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하고 창의적인 혁신과 도전으로 전문성 강화, 건강한 조직문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우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장어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개선과 치유 음식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모범적으로 구축하고 추진

해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우수한 자연생태환경 속에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친환경체험관광과 연계한 건강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울러 고창군 출연기관인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를 활용해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면서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길수 부군수는 "미래에는 친환경 먹거리 시장의 선점이 미래농업의 핵심이 될 것이며 고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민선 6기 고창군은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고급화 전략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은 그러한 고창군의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이미지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고 앞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행정을 펼쳐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고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생태 복원·어린 소득증대 수산자원 조성 '알맞'

붕어·동자개 151만마리 방류

고창군이 내수면 수역 특성에 적합하고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해 수산자원증식과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할 수 있도록 붕어와 동자개 등 총 151만 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붕어 89만 마리, 동자개 62만 마리를 대신면 산

정제, 부안면 수동저수지 등 지역 내 저수지와 하천에 유관기관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붕어와 동자개 치어는 전장 4cm이상 크기로 전문기관 질병검사를 모두 통과한 우량종묘다.

또한 방류한 어린 종자가 생산한 서식환경에 적응해 자연생태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방류한 지역에서 불

법감시이행확인서를 제출받아 방류된 치어들이 포획되지 않게 철저한 감시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04년부터 꾸준히 붕어, 잉어 등을 방류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하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만전'

정읍시가 무더운 날씨로 악취 발생 등이 많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악취나 해충 발생이 많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해 관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시는 7월과 8월 부피가 큰 계절 과일인 수박 등의 소비 증가로 음식물 쓰레기량이 늘어나는데다 유통업체에서 음식물류 쓰레기 증가로 수거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악취 발생 등

시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이의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시는 수거업체와 함께 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동지역은 4개조, 읍면지역은 2개조로 편성해 당일 민원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또 수거업체의 수거 누락이나 수거시간 미 준수 수거 후 소독시 여부와 잔재쓰레기 수거 실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서 청문실, 주민 결 피해자 보호활동 '호응'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 청문감사실에서는 각종 범죄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마음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있어 잔잔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직간접적인 관련기관과 연계된 경제적 지원은 물론 보행 중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용품 제공을 위한 장례행렬 방지까지 안전유도에 이르기까지 주민 결 慰撫(위무) 활동에 적

극 나서고 있다. 또한 사건사고 취급 관련부서와 유기적 협업을 통한 고창서 청문실의 피해자 보호노력은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박현수 서장은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치안행정이야말로 기본중의 기본이고 앞으로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several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smaller images of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character.